

광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갈길 멀다'

광주의료원 예타 재조사 불투명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동력 상실
시·도, 6월 타당성조사도 '난관'
의료불균형 심각...정부 관심 절실

민선8기 광주시가 낙후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 등 약재가 겹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의료원의 경우 낮은 경제성으로 설립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은 다른 현안에 밀려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서구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 2만5,000㎡에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광주의료원 설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에만 지방의료원이 없다는 점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조해 왔던 광주시는 울산의료원의 예타 탈락에 비상이 걸렸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를 넘기 어려운 공공의료원 특성을 고려하면 광주의료원은 울산의료원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의료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께로 예상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사례를 볼때 광주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전망은 어둡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병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 공백 해소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도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빠르면 6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개원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중입자가속기 치료기 국산화 연구 실패와 기종 변경 등으로 수천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대선 직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정부 예산

에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조차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부재는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부채질해 광주지역의 경우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증도보정사망비 등 각종 의료지표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수는 321.1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으며 응급실 이용자 중 중증 응급환자비율도 16.3%에 달해 응급의료안전망 추가 구축도 절실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암 치료 진단 기관 등 상급 의료 기관은 수도권과 경남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의료적 혜택을 보지 못해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두 시설은 열악한 광주·전남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정부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 등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치권·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5·18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 구성하자"

강 시장, 정치권 등 공식 제안
50주년 '나들의 위원회' 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추진 기구와 5·18의 의미를 재정립할 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강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통해 "5·18 기념 주간은 끝났지만, 남겨진 과제들이 많다"며 "헌법전문 수록은 5·18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중단시키고, 그 정신을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서 헌법전문 수록 언급이 빠져 그 말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모두 허탈한 마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겠다"며 가장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규모와 업무, 출범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 정당, 5월 단체, 민주화 단체 등과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5·18의 의미를 재정립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강 시장은 "5·18은 1980년 5월 시민군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 애쓴 이들, 오월 정신을 이어온 민주주의자들, 지금의 우리까지 모두의 것, '나' 들의 것"이라며 "모든 주체와 함께 2030년 50주년까지 5·18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기구인 가장 '나들의 5·18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5·18 교육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5·18 단체의 광주시에 대한 잇단 고소에 대해선 "5·18의 주인은 나(해당 단체)다"라는 주장으로 들린다"며 "과연 그럴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5·18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제안한다"며 "이제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광장'으로 나와 새로운 세대의 질문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5·18의 도시이고 5·18은 광주의 날이기 때문에 5·18 기념행사는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민주평화대행진과 5·18전야제는 시민참여와 시민공감이라는 큰 원칙 아래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내년 5·18 44주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협상결렬 6월도 힘들 듯

전원위 소위 무산... 선거구 획정 요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소위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야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중순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정개혁위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을 토대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전원위에 소위를 별도로 구성, 최종 압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개혁위가 넘겨받아 의결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는 한 달 넘도록 공전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천연기념물 팔색조 사냥한 매

도 불리는 매는 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평, 토끼 등의 사냥에 이용해 왔고 팔색조는 다채로운 매력으로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한 사람'을 뜻하는 팔방미인(八方美人)을 비유하는 새다.

천연기념물 제323-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매가 최근 제주 해안의 한 계곡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팔색조를 사냥해 암컷(아래)에게 전달하고 있다. 송골매라고 불리는 매는 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평, 토끼 등의 사냥에 이용해 왔고 팔색조는 다채로운 매력으로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한 사람'을 뜻하는 팔방미인(八方美人)을 비유하는 새다. /김태규 기자

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개혁위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사

례를 봐도 선거제는 결국엔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는

나쁜 반론도 많았다"며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

쳐 정개혁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서울=김대원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남구와 함께 내 일(JOB)을 잡(JOB)아 보자!

- 취업상담센터
 - 취업연계종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 상담, 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일자리박람회
 - ON-OFFLINE 박람회
 - 맞춤형 취업컨설팅
 - 구인기업정보제공
- 공공일자리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생계안정
 -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